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희망지역아동센터



2017. 7

정*림

아침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프로그램 보안 및 다음 프로그램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해주는 모습에 기뻐고 힘이 났다. 아이들 모두가 빛났고 미소가 예뻐다. 짧은 5일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은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얘기하고 장난치며 서로를 알아가던 중이었는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어 공허함이 크다. 매년 여름, 겨울이면 이별의 슬픔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만나 기쁨을 주고 싶다.

여름 방학 때 특별한 계획이 없어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한 이화 봉사단 활동이 나의 이번 여름을 크게 채워줬다. 희망 아동 지역 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것과 이화 봉사단을 통해 좋은 벗들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지난 5일 동안 동고동락했다. 그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무사히 봉사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여름 국내 교육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사회 봉사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며 함께한 희망 지역 아동 센터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이화 봉사단 벗들에게 고맙다. 다른 이에겐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았던 활동이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시의 문구는 이번 이화봉사단을 임하는 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이화봉사단 마지막 날 헤어짐이 슬퍼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또 올게. 올지마.”라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온 사람 없어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다녀오기 이전 이화봉사단의 그 누군가가 우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기대하고 또 실망하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지난 겨울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단에서 희망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센터측에서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 여름 희망지역아동센터에서 다시 신청을 하면서 나에게도 다시 갈 수 있는 기회,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희망지역아동센터를 두 번 갈 수 있게 되어서 지난 겨울 학년이 바뀌지 않아 1학년이었던 아이가 3학년이 된 모습을, 초등학교 입학할 준비하던 8살이 2학년이 된 모습, 말썽쟁이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챙기는 든직한 형이 된 모습들처럼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익숙한 아이들이 절반이고 새로운 아이들이 절반이었는데 지난 번에 봤었던 아이들은 “선생님 얼굴이 낯익은데 어디서 봤죠?”하면서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선생님 기억나?”라고 물으니 기억난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진하기도 또 영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심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우리의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프로그램 중간중간 같은 팀원들끼리 논의하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잘 이끌고 갔었던 점에서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속상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재밌어하면서 집중해서 참여해주었을 때 나름 뿌듯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센터에서 마련해주신 사무실에 들어가서 쉬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프로그램의 준비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팀워크도 점차 증진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남은 시간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봉사단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였던지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안갔으면 좋겠다며 말하곤 했습니다.

마지막날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봉사단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봉사단에서 직접 만든 수료증과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우리는 모두 별이고, 모두 반짝이고 있다’라는 문구가 박힌 보트에 간식을 가득 넣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여자아이들이 이별의 순간을 체감했는지 울기 시작했고 남자아이들은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라며 울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봉사단 선생님 한명한명에게 편지를 써주라고 하자 아이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과 또 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림을 그려주고 종이접기를 해서 선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내가 가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의 저의 생각은 이화봉사단을 하면서 많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이화봉사단을 다녀오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이화봉사단의 추억이 큰 에너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이화봉사단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부족한 내가 미래에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봉사단을 다녀오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커다란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애정과 관심보다 아이들이 저에게 준 관심과 애정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사란 내가 남에게 베푸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서로 주고 받는 양방향적인 소통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된 좋은 기회였음에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화봉사단에 감사드립니다.

정*영

처음 이화봉사단에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팀원들과 기획하고 회의하고 정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봉사 활동을 가기 전 준비할 때 준비할 게 많아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최대한 팀원들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봉사 기관에 가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중을 잘 안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하는 활동을 잘 따라와 주고 쉬는 시간에도 같이 놀아주면서 친해져서 봉사 활동 기간 동안 즐겁고 보람차게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가 끝났을 때 눈물을 보이며 아쉬워하던 아이들을 보며 4박 5일 간의 길지 않은 봉사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정도 들고 선생님들을 잘 따라준게 너무 고맙고 오히려 제가 더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이화봉사단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정

이화봉사단을 통해 희망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설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아동 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첫날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서먹하게 대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같이 생활하며 아이들은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다. 우리 팀원들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이들과의 일과가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프로그램들을 미리 해보고 준비물을 챙기는 등 더욱 노력하였다. 이 과정이 힘들기도 하였으나,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뿌듯해 하는 아이들을 보니 그동안의 과정이 보람차게 느껴졌다. 이렇게 아이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다보니 프로그램이 하나씩 끝날 때 마다 아쉽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롤링페이퍼에 써주는 서툴지만 진심어린 글들을 보니 벌써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아쉽고 슬펐다. 아이들 한명 한명과 정이 많이 들어서 센터를 나오기 쉽지 않았다. 이런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이들과 이화봉사단 팀원들과 함께 한 5일간의 추억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심*빈

이화봉사단이 되고 나서 아이들의 연령대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과연 어린 아이들이 처음 보는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낯선 선생님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분위기를 잡을 수 있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선생님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어했음을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아이들에게 한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아이들과 친해지다 보니 5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아이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첫날과 워터파크가 신체적으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선생님들과 재밌게 활동해줬기 때문에 5일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날에도 수많은 편지와 인사말로 그 마음을 전해줬고 지금 끝난 이 순간에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다음 계절에도 참여하고 싶고 이 아이들이 우리 이화봉사단과 함께 추억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임*현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어려웠을 테고 아이들이 어리기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성격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서 모두에게 맞추기도 어렵고 집중시키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웃을 때 또 잘해내주고 은근슬쩍 진심을 비춰줄 때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 기쁠 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을 잘 따라주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되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더 이해해보고 양보하고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 시작 전에도, 중간 중간에도 끝나고도 다음날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봉사단원들과 아이들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즐거웠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울면서 다시 오라고 할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짧지만 5일 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했기를 바라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인 보틀에 담겨진 말인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이고 있다.'처럼 아이들도 그리고 저희 이화봉사단 멤버들도 항상 반짝이는 나날들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서 조금 더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과 또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